

# 주민 삶의 질 향상... 누구나 살 수 있는 곳 만드는데 주력

**1** 1960~70년대 이농 현상으로 촉발된 진안군 인구 감소세가 50여년 만에 멈췄다. 진안군 인구는 지난 1966년 10만 2,539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976년 9만 2,967명, 1986년 6만 333명, 1996년 3만 8,125명, 2006년 3만 1,359명, 2016년 2만 6,069명으로 내리막길을 걷다 51년 만인 올해 2만 6,170명(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1명이 늘었다.

이처럼 진안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민선 6기 들어 정주생활기반 개선, 교육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행복지수를 높인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부군수 직속의 인구늘리기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격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인구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민선 6기 진안군의 발자취와 현재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항로 군수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시가스 공급 협약

**1. 정말 빈기는 소식입니다. 진안군 인구가 50년, 정확히는 5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비결은?**

1966년 10만이 넘었던 진안군 인구는 10년 뒤 9만 2,967명으로 떨어졌고, 20년 뒤 6만 333명, 30년 뒤 3만 8,12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이농현상과 1990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용담댐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이후로도 젊은 층의 도시 유출로 인구는 해마다 줄어 2005년 3만 명이 무너진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인구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하고 인프라와 서비스 질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방인구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진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 관광,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농업 환경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산물 판로확보에 힘써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2.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산간벽지·오지마을 주민들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승합차량을 제공하는 행복버스 서비스를 진안군 전체 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을 소재지권 교통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마다 순환하는 100원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행복버스는 기존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해 주민 대중교통 수요에 적극 부합하는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으로 평가 받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7 생활권 선도사업 심층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115곳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주민주도의 쓰레기 3NO 운동, 친환경 우렁이 농법 확대(1640ha), 친환경 제설제 전면사용, 농기계 폐유 교환 등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2018년 10월이면 진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기존보다 3분의 1가량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진안홍삼축제,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 등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강화해 홍삼 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고향할머니 장터, 주말시장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부군수 직속의 인구정책 전담부서도 신설하셨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부군수 직속으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기본계획 수립, 신규시책 발굴 등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4.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국가예산 확보 성과는?**

진안군 예산 규모 4,000억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에 취임한 해인 2014년도 진안군 본예산 규모가 3,002억원이었는데, 2018년도인 내년엔 34%(1,017억원) 증가한 4,01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진안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문화·경제 등에 행정력 집중 그 결과 인구 증가세로 돌아서

행복버스 서비스 면 지역 운행 내년 10월 도시가스 공급 목표 주민주도 쓰레기 NGO 운동 벌여

명인명품관·가위박물관 등 마이산 북부에 변화 일으켜

군민 소득향상에 최선 다할 것

**5. 2018년 10월 도시가스가 예정대로 진안에 공급되나요?**

2018년 10월 공급을 목표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급 시점을 2개월 정도 앞당기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안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주매관 공사에는 420억원(국비), 공급배관 공사에는 80억원(지방비)이 투입됩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기존보다 3분의 1가량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진안고원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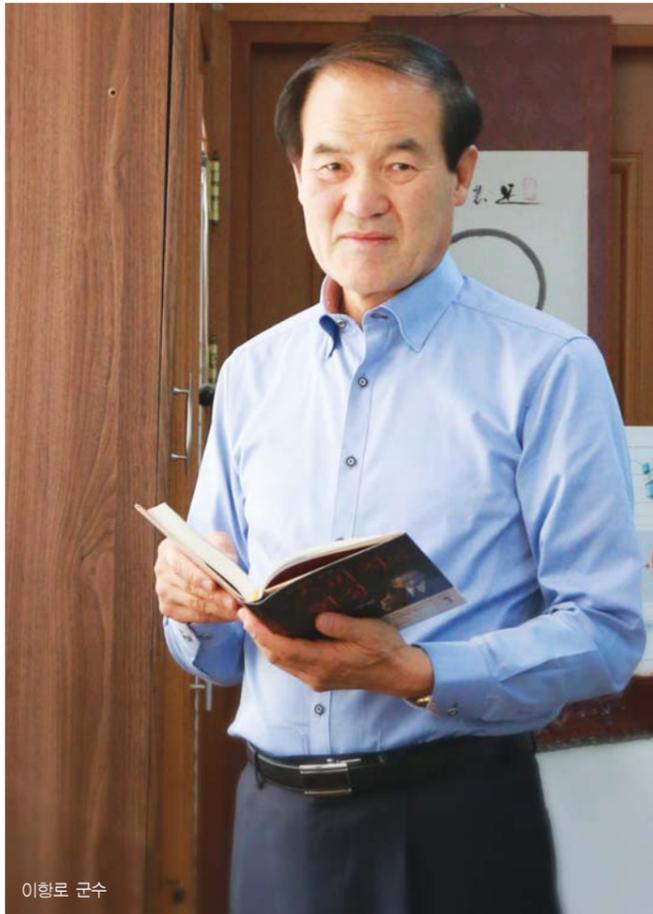
농산물은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및 난방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농산물의 기획생산을 통해 연중생산체계를 만들고 생산품목을 다양화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장터, 농협인수입 매장, 구봉산 농산물 판매장 설치 등 판매처를 다양화하고 진안시장내 고향할머니 장터 및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엔 전주권 로컬직매장을 엽니다.



이항로 군수



홍삼축제



행복버스 개통식



고향 할머니 장터

**7. 진안홍삼축제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 진안홍삼의 경쟁력은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가?**

2017 진안홍삼축제가 26만5,700여명이 다녀가며 15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진안홍삼의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삼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진안홍삼연구소가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된 내용을 군수가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삼·홍삼산업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진안홍삼, 진안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도 마쳤습니다.

특히 진안산 수매사업 확대와 진안홍삼의 품질 균일화를 위한 진안홍삼 품질인증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삼 재배농가 및 홍삼가공업체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에서 생산된 '진안홍삼'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수상했습니다.

**8. 홍삼축제가 열린 마이산 북부가 물라보게 달라졌습니까. 최근 몇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마이산 남부는 역사와 신비체험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북부는 체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산을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전통 명인들이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시연·홍보하고 마이산의 신비한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명인명품관이 11월 25일 개관했습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세계 유일 가위박물관(동서양 회귀 가위 1500여점 전시)과 올 연말 준공예정인 생태공원이 완료되면 마이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마이산 북부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이미 완료된 마이산 농촌테마공원, 미로공원, 사당재 수변공원, 산악초타운, 북부상가 이전, 홍삼스타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7대 분야 23개 사업 중 현재까지 14건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사업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진안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주말시장 및 진안시장 전통재래시장화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14건을 완료했고 △도시가스 공급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 △주민주도 쓰레기 3NO 운동 전 지역 확대 등 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는 9건은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민선 6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인지?**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정주인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이산 연계 체험·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늘어나겠습니다.

민선 6기 진안군의 공격적인 목표인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안=우태만 기자